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평화의 도구

(제 170 호)

07년 10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이 세홍(바오로),sfo (562)860-6930
 *사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739-4226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y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10월 7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들과 함께 음식을 제공하여 봉사 하였습니다.

■ 형제회 사목적 방문

오는 11월 4일(일) 지구형제회에서 형제적/사목적 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 FYLA 새 평의회원 임명

FYLA는 지난 9월 4일(화) 성 토마스 성당에서 공석중이던 평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다시 임명 조정하였습니다.

- 회 장: 최 두영 막시미노
- 부회장: 윤 성민 도미니코
- 서 기: 권 세경 카타리나
- 회 계: 권 연경 마리아
- 양 성: 정 희영 리디아

■ FYLA 기부금

FYLA 에서는 지난 8월 18-19일 성령 쇄신대

회에서 목주를 판매하여 수익금 \$2,825.16 (기부금 \$1,527+판매 \$1,688-재료비 \$398.84) 이 발생하여 러시아 선교회 \$1,100 그리고 한국 성모의 집에 \$1,725.16을 기부하였습니다.

■ 처음 오신분

환영합니다.

8월 26일 곽인애(막달레나)

9월 23일 권수현(세실리아)

■ 월보 담당 모집

형제회 월보 제작을 담당할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는 분을 평의회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회원 소개- 12번째】

나는 누구 일까요 ?

저는 70대입니다. 저는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성인의 영성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싶어 1998년에 형제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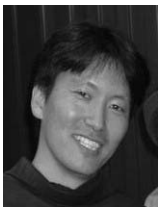
가입하였습니다. 성인은 가난하시면서 근검 절약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적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느님께만 몰두하며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삶을 존경합니다.

저는 1988년 장봉훈 가브리엘 신부님(지금은 주교님)께로 부터 영세를 받고 다음 해에 견진을 받았고 여러 단체에서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여 왔으며 앞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 남매의 딸 딸로써 성격은 독립심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며 희생적인 성격입니다. 좋은 가정 과 귀한 삶을 주신 주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회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다른 단체에 비하여 회원 모두가 양보와 희생 정신이 강하여 사랑으로 서로 보살펴 주는 점입니다.

【러시아 선교】

러시아 우수리스크 선교사 김용철 신부 홀로 행려인 복지관 건립 안간힘... 장애인 연주단과 귀국 모금 공연



[다음은 평화신문 2007년 9월 9일자 신문에 “러시아 선교”에 관한 기사 내용을 실은 것입니다]

7년전 러시아로 선교하러 떠났던 김용철(작은형제회) 신부가 잠시 귀국했다. 출국 때는 배낭 하나 달랑 둘러멘 단출한 차림이었는데 귀국 길에는 러시아인과 고려인을 합해 27명 대가족을 대동했다. 김 신부가 선교 등지를 튼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장애인 연주단과 현지 아리랑예술단의 고려인 단원들이다.

우수리스크에서 행려자 복지관을 짓고 있는 김 신부는 8월 31일부터 사흘간 이들과 함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건립기금 모금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거리에 행려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인 연해주 제2의 도시 우수리스크만해도 겨울에 매일 10~15명이 거리에서 얼어죽는데, 시 당국은 재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쥐 꼬리만 한 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은 당장 내일이라도 거리로 쫓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 행려자라는 점 입니다."

복지관 건립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다. 러시아 가톨릭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90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때까지 '침묵의 교회'였다. 그는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우수리스크에 '마리아'라는 노인 신자가 산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 2001년 '성당'을 열었다. 가정집을 개조한 성당에서 요즘 20여 명이 주일미사를 봉헌한다. 가톨릭이 70여 년간 꽂꽂 얼어붙어 있던 정교회 국가에서 신자수 20여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복지관 건립은 무일푼 이방인 선교사로서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 중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행려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중국인 노무자들을 직접 데려오고 모든 건축자재, 하다 못해 못 한 개 까지 직접 사다가 직영 공사를 했어요."

민간 복지사업 개념이 없는 시 당국은 "용도 변경해서 호텔이나 카지노를 열려는 것 아니냐?"고 반신 반의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마무리 공사 중인 3층 높이(건평 2031㎡) 복지관은 연해주 일대의 첫 사설 복지기관이다. 주민들은 5년은 족히 걸릴 공사를 1년 6개월만에 끝내는 데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건축비 15억 원을 조달한 것도 놀랍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불안정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게 불안정하지만 바탕에 복음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축을 시작 하니까 수도회 한국관구, 벨기에 작은형제회, 미주 재속회 등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는 운영 비 걱정도 하지 않는다. 걱정이 태산같아야 정상일텐데 천하태평이다.

"지난 7년을 돌아보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주셨어요. 저는 행려자들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들은 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 복지관 후원 문의: 02-6364-5500 작은형제회.

☞ 회원 소개-김영숙(테레사) 자매

【영 성】

프란치스칸

사도적, 선교적 영성

1. 모든 계층의 크리스찬에게 개방된 영성

교회 안에서의 수도생활의 역사를 보면, 어떤 수도생활 양식은 성직자 중심이고, 또 어떤 생활양식은 극히 수도승적(평수사 중심)이었다. 프란치스꼬는 성직계에 속하든 평신도계에 속하든, 또 출신 신분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모두를 받아들였다. 마치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계급과 신분의 지장 없이 불리움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란치스꼬는 여자들을 위한 프란치스칸적인 생활양식을 창설하였으며(제2회: 글라라회), 평신도들을 위해서도 프란치스칸적인 생활양식을 창설하였다(제3회: 재속 프란치스꼬회). 이리하여 신분, 계급 여하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난 하시고 겸손하시며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을 실현에 옮긴 셈이다.

2. 교회 안에서의 영성

프란치스칸의 거룩한 복음을 따르는 생활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생활이다. 프란치스꼬는 시초부터 자신의 성소가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를 교회가 가려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초기 형제들이 선택한 생활양식을 교황성하로부터 인준받으려고 노력하였다. 당시의 복음적 운동들은 프란치스꼬처럼 거룩한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을 주창하였지만, 교회에 반기를 들며 교회 없는 삶의 구조를 추구함으로써 이단에 빠지는 오류들을 범하기도 하였다.

프란치스꼬는 이러한 이단적인 오류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를 교회 안에서의 삶을 택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친히 사도들을 주주 삼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삶이 되고 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형제들이 교회와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을 드리라고 명했으며, 입회의 조건에 있어서도 "가톨릭 신앙과 교회의 성사"에 대한 시험을 전제로 하기도 하였다. 어떤 속화되고 불쌍한 사제를 만난다해도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도 가르쳤다. 이렇게 거룩한 복음을 따르는 생활과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요소였다. 그래서 그는 회칙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형제들은 거룩한 교회의 발 아래 항상 매여 순종함으로,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굳게 서약한 가난과 겸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도록 합시다"(2회칙 12,4).

3. 삶의 영성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삶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사명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에 이바지하는 프란치스칸적인 방법은 어떤 사업이나 거창한 활동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삶으로써 자신들이 크리스찬이요 회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는 어떤 수도회들의 카리스마처럼 어떤 사업이나 고유 목적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근본적으로 복음을 삶으로써 그 삶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은 "생활 혹은 삶"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이 생활을 받아들이려는 이들은..."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은 사업이나 활동보다는 형제적인 삶, 회개의 삶, 복음적 생활이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나 활동은 삶의 결과로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삶을 통해 스스로 복음화 되고 또 복음화 시키는 것이 작은 형제들의 제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4. 선교적 영성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이바지하도록 불리움받은 작은 형제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에 열려있기 마련이다. 프란치스칸 역시 초기부터 이러한 선교적 열정에 북받쳐 수차례에 걸쳐 선교여행을 떠났으며, 순교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별히 당시 그리스도교와 가장 적대적이었던 이슬람교도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화해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하였다. 그 결과 성지탈환의 이유로 십자군 전쟁이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 그는 동방으로 건너가 홀몸으로 이슬람의 술탄을 만나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한 형제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성지 이스라엘은 작은 형제들의 배타적인 선교지로 사도좌는 인정하고 있고, 회교도들도 작은 형제들만을 로마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부요 스승의 선교적 모범은 작은 형제들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늘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러한 선교적 열정의 덕분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교와 프란치스카니즘을 심어왔고

또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태국 등 선교 프로젝트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프란치스칸 성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한국의 김 미카엘(성인) 수사님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목 상】

열어보지 않은 선물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 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 하나 그 것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 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눈과 귀와 손 끝이... 별걸음이 그 것을 좋아하면 기쁨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이고 사랑이라 느끼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그 것은 불평과 불만의 상자가 될 것이고,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면 그 것은 당신에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 것이 하루 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 하루, 그 것은 당신에게 스스로 내용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하루 하루가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